

새해 LA 교계의 신선한 새벽 강단교류

작은교회 목회자·선교사 초청, 풍성한 새벽강단 이어져

엔데믹 가운데서 맞는 새해에 엘에이 한인 교계에 교회 간의 아름다운 협력과 교류의 장이 새벽강단을 통해 이뤄져서 주목된다.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주제로 2일부터 7일까지 신년특별새벽기도회를 열고 2023년 새해 첫 주의 새벽을 하나님께 드렸다.

기쁜우리교회는 이 기간 동안 지역의 작은교회 목회자를 초청해 새벽강단 메시지를 들었다. 또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선교사들도 설교자로 초청했다. 어느 때보다 풍성한 새벽강단 말씀이 이어진 기간이었다.

지난 5일에는 버몬한인교회 담임 장현석 목사가 ‘기도하는 왕 여호사밧’(역대하 17장 1-6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도 국가도 든든히 서고 강력해진다”고 역설했다.

또 장 목사는 “여호사밧 왕은 다윗과 가



버몬한인교회 담임 장현석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기독일보

장 님은 왕이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우상을 제거했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서 “여호사밧 왕은 온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돕고 지도자를 곳곳에 파송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목사는 역대하 17장 10-13절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선 나라의 위상에 대해 “하나님은 유대 사방 모든 나라가 두려워 떨게 하셨다”고 설명했다.

장 목사는 “여호사밧이 나이가 들자 주변에서 그가 힘이 빠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주변나라에게 연합해서 공격했을 때 여호사밧은 염려만 하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낮게 들어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면서 “결국 왕과 모든 백성이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케 해주셨다. 새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이 되자”고 권면했다.

기쁜우리교회가 시도한 신년초 특별새벽 기도회의 풍성한 강단교류는 한 마음으로 모이기 힘쓰자는 올해 교회의 표어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과 교회의 크고 작음을 넘어서 서로 한 마음이 되도록 힘쓴 특새기간이었다.

기쁜우리교회의 올해의 방향은 1월1일 첫 주일예배에서 전했던 김경진 목사의 설교에서 자세히 나타난다.

김 목사는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히브리서 10:19-25)라는 교회표어와 동일한 주일예배 말씀을 통해 “팬데믹의 힘든 기간을 지내온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와 공동체성”이라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기간 동안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김 목사는 히브리서 10:24-25 말씀을 강조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서 “서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통해 감격을 받아 그것이 은혜롭고 온전한 교제로 이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조영한 기자

美 새 회기 연방의원 중 기독교인 88% 차지

미국 내 기독교인 인구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연방의회 의원의 압도적 다수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6일 보도했다.

미국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집계한 ‘페이스 온 더 힐(Faith on the Hill)’ 보고서에 따르면, 제118대 미국 연방의회 의원 중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의원은 전체 534명 중 469명(88%)으로 조사됐다. 그중 개신교인은 303명(57%), 가톨릭 신자는 148명(28%)이다.

이 수치는 미국 인구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이후 78%에서 63%로 감소한 결과와 대조를 이룬다. 또 기독교인의 비율은 96대 회기에서 91%를 차지했던

1979-80년 이후 올해가 두 번째로 높다.

반면, 2023-2024년 회기에서 469명인 기독교인 의원 수는 종교적 소속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9-2010년 회기 이래로 가장 낮았다. 앞서 8년의 회기 동안 의회의 기독교인 수는 470명을 넘겼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의원의 대다수(99%)가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으며, 민주당 의원은 4명 중 3명 이상(76%)이 기독교인이라고 답했다. 두 정당 모두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우세하며, 이는 미국 성인의 기독교인 비율(63%)보다 훨씬 웃돈다.

반면, 민주당 의원은 공화당보다 가톨릭 신자(31% 대 25%)일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았지만 기독교 신자(69% 대 44%)는 공화당

의원이 훨씬 더 높았다.

개신교인은 하원(57%)과 상원(56%) 모두에서 과반수를 보였고, 침례교인은 67명(하원 13%, 상원 1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감리교인 31명, 성공회 교인 22명, 장로교인 25명, 루터교인 22명, 몰몬교인 9명, 그리스 정교인 8명 순이었다.

비기독교인 의원은 65명으로 117대 의회(64명)에 비해 소폭 늘었다. 그중 유대교인은 33명, 이슬람교인 3명, 유니테리언 보편주의자 3명, 자유주의 기독교인 3명, 힌두교인 2명, 불교인 2명이다.

통계상 미국 성인의 29%가 무교인 데 반해, 의원 중 무교인은 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무소속·애리조나) 단 한 명뿐이다. 시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의회사당 건물. ©Unsplash.com

마 의원은 미국에서 자신을 양성애자로 공개한 최초의 상원의원으로, 작년 12월 민주당과 섹체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탈당했다.

설문은 의회 전문 매체 ‘롤콜’(Roll Call)이 실시했으며 의원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관행이 아닌, 종교적 소속만을 조사한 결과이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전기로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뱅크런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률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한기홍 담임목사

2023 HAPPY NEW YEAR
신년 축복 성회
Uniting with the **NEXT GENERATION** unto the ends of the earth
다음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2023.1.26(목)~29(주일)
목(7:30pm), 금(5:30am, 7:30pm)
토요일(6:00am, 7:30pm), 주일(1부~4부)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강사: 조지훈 목사(조이플교회 담임)
조지훈 목사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1000 www.gracemi.com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할 것”

평강교회 담임 송금관 목사 취임

캘리포니아주 사우스 패서디나에 자리한 평강교회 제2대 담임으로 송금관 목사가 취임했다. 42년간 평강교회를 섬겨온 이상기 목사는 원로 목사로 추대됐다.

지난 8일 진행된 담임 목사 취임 및 원로 목사 추대 예배에는 200여명의 성도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이상기 원로 목사가 42년 전 설립해 이끌어온 평강교회는 제2대 송금관 담임 목사 취임으로 새로운 부흥과 발전된 교회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상기 원로 목사는 이날 은퇴 설교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22절을 인용하면서 “송금관 목사님을 만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하나님에 보내주시는 목사님을 만나 마음 놓고 은퇴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송금관 2대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강교회 제2대 담임 송금관 목사 취임 및 이상기 원로 목사 추대 예배

송금관 제2대 담임목사는 목사 취임 서약 및 공포에서 42년간 교회를 이끌어온 이상기 원로 목사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

씀, 기도, 양육, 전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평강교회 주소는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이며, 전화는 213)393-9136, 웹사

이트 주소는 www.pyongkang.com이다. 유튜브 채널 [평강교회@pyongkang]에서 은혜로운 설교를 들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초고령 시대 대비 시니어 복지 목회 포럼” 개최

1월 18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진행



강남대학교 이준우 교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오는 18일(수) 오후 3시(미 서부시간) 초고령 시대 대비 시니어 복지 목회 포럼을 개최한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과)가 “성육신적 시니어 복지 목회의 방향과 실제”란 주제로, 이상진 목사(한미치매센터 대표, 스마일 양로보건센터 프로그램 디렉터)가 “치매 친화적 신앙공동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World Mission University 채널을 검색하거나, Zoom 번호 213 388 1000 (<https://zoom.us/j/2133881000>)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8-1000으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예수만이 구원의 길...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남시다”

김준기 집사가 「천국에서 만나자」를 출간했다.

‘천국에서 만나자’는 저자가 일평생 체험한 진리의 기록들 한데 모아 엮은 책으로, 성경의 지식을 넘어 순결한 믿음과 깊은 영성을 바탕으로 체험한 진리의 깨달음이 담겨 있다.

저자의 신앙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들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신앙인의 고백과도 같다. 이는 마치 야곱이 압복강 가에서 생사의 기로와 생존 경쟁의 터전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체험한 삶의 경험들이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소개하는 그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눈 앞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 품에 안겨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한다.

저자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의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 능력의 말, 진리의 말로 우리 앞에 놓여진 희망과 꿈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성경 66권 속에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구원, 천국 등 사람들이 알아야 할 기독교 진리를 알기 쉽

게 잘 정리하고 있으며, 어떻게 성경공부를 하고 신앙 생활을 할 것인지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를 비롯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설교 자료까지 포함돼 유익함을 더했다.

책에 소개된 “내가 믿는 모든 것을 너희들도 꼭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저자의 간절한 절규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메시지이자 영혼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내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유언으로 남기고자 했다”며 “나의 자손들과 친척들과 내 일생에 만났던 교우들과 친구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되는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얻는 좁은 길이요 참 진리이심을 증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영원이라는 선위에 인생 80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며 “이제 내 몸은 노쇠하여 가지만 죽기 전에 성경공부를 하는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알게 된 이 비밀을 글로 남겨 내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과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대해



본다”고 책을 소개했다.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 “김준기 집사의 ‘천국에서 만나자’는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복음의 열정과 한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도록 인도할 것”이라며 “복음 안에서 구원 받고 성숙한 믿음 생활로 나아가길 원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일독을 권한다”고 추천했다.

김동욱 기자

새로운 시대를 위한 GMU공개교육 세미나

그레임미션대학교(GMU)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신학, 상담,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들은 무료공개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는 특강과 질의와 응답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Zoom으로도 온라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p>신학부 1월 23일(월) 6:00~8:30pm</p>	<p>코로나 이후 목회의 방향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목회자들도 큰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목회에서 요구되는 변화, 그것의 수용여부와 그 한계는 전환기적 목회상황을 맞은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목회적 고민을 갖게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 해법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강사: 황성철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은퇴교수)</p>
<p>다문화교육 1월 24일(화) 6:00~8:30pm</p>	<p>새 시대를 향한 선교적 전진과 통합 교육 예측하기 힘든 변화의 물결의 새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통합교육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시대적 복음의 확장과 전진을 위한 선교적 전략을 조명해 볼 것입니다. 강사: 최재훈교수(MAICS), 장영미교수(MACE)</p>
<p>상담학부 1월 26일(목) 6:00~8:30pm</p>	<p>행복한 삶을 위한 중독 예방과 치유 세미나 우리 사회는 알코올, 마약, 도박, 스마트폰 중독 등으로 인해 개인과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독’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치료 그리고 예방에 대해 소개합니다.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이 살아나는 변화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사: 권오균 교수(CATC-V, Ph.D), 최은아 교수(Family Therapy, Ph.D), 이해왕 선교사(“중독증 치유” 교재 저자)</p>



GRACE MISSION UNIVERSITY

장소: Grace Mission University (미라클센터 #316)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 E-mail: gmu@gm.edu

학교홈페이지: www.gm.edu

남가주밀알, 102명에 총 12만8천 달러 장학금 전달

2023 밀알장학복지기금 수여식
16일(월)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은 2023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을 오는 1월 16일(월)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에서 거행한다.

올해에는 미주장애인장학생 7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장학생 2명, James Worldwide 장학생 10명, Moon Foundation 장학생 10명,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20명, 제3국 및 중남미 장학생 30명, 긴급지원대상 추가 기금 20명 등 총 102 명에게 12만 8천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2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이번에 수여되는 장학금은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2022 밀알의밤'을 통해 모금된 재원

으로 마련됐다. 이종희牧사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밀알

의밤을 적극 성원해주셔서 풍성한 장학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후원자님들, 교회, 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2023 년도 밀알 장학금 수여식이 은혜가운데 진행되도록, 또 새로 선발된 장학생들의 삶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넘쳐나도록 계속 기도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밀알선교단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2001년부터 매년 신청자들 중 일부를 선발해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2년 1월 14일, 제1회 밀알장학기금 수여식이 거행됐으며, 2023년까지 누적 총 지급액은 2백87만6천 200달러에 달한다. 김동욱 기자

효사랑선교회 신년하례식 "올해 정규 시니어 대학 설립 목표"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는 지난 7일, 효사랑선교회 예배실에서 스텝진과 봉사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갖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효사랑선교회는 2023년 표어를 "역전의 믿음으로"로 정하고 청소년 정체성 찾기 사역과 부모 세대,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대학을 올해부터 주2회(화,목)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장학회를 설립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히 설립 21주년을 맞게 되는 올해, 정규 시니어 대학 설립의 비전 성취를 목표로 삼았다.

김영찬 목사는 "효사랑선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항상 있지만, 요셉과 같이 원망과 불평 없이 헌신된 봉사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하례식은 시니어대학 학장 정찬군 목사(예심교회 담임)의 사회로 박재만 목사(마라클 포인트)의 기도예 이어 김영찬 목사가 "역전의 믿음으로"(창41:38-40)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영찬 목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역전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요셉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킨 믿음의 사람이었다"며 "요셉과 같이 환경과 죄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역전의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되자"고 전했다.

김 목사는 이어 "효사랑선교회가 지난 3년간 펜데믹 기간에도 코로나와 싸우며 더



효사랑선교회 2023 신년하례식

활기찬 사역을 이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스텝진과 봉사자로 섬겨주신 강사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봉사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김동욱 기자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한 단체로 통합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통합 총회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회장 임영호)와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송종록, 이사장 정지윤)가 한 단체로 통합했다.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와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는 지난 7일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합동 총회를 개최하고 두 단체의 연합을 알렸다.

통합 단체명은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출판되는 책이름은 미주크리스찬문학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통

합 회장으로는 임영호 목사를, 부회장으로는 송종록 목사를 선출했다.

이날 연합예배는 송종록 목사의 사회로 방동섭 목사의 대표 기도예 이어 임영호 목사 "하나님의 선물"(에베소서 4장1절-6절)이란 제목으로 설교 했다.

임영호 목사는 "작은 강이 모여 바다로 흘러가 바다를 이루듯, 하나님은 언제나 적은 것을 선택하셔서 크게 이루어 주신다"며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겸손과 은사로 하나님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2부 총회는 송종록 목사의 사회로 임영호 목사의 인사 후 김종용 시인이 회부에 대한 기도를 했다. 현안 보고 및 안건 토의에 이어 최광량 목사의 축사와 정지윤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고, 송인 시인의 광고 후 김창호 목사의 축사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동욱 기자

미주연세조찬기도회 신년 조찬 기도회 개최



제이제이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된 미주연세조찬기도회 신년 조찬 기도회

미주연세조찬기도회(회장 정요한 목사)는 지난 7일 오전 7시, 엘에이 코리아타운에 소재한 제이제이그랜드호텔에서 새해를 맞아 신년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찬 기도회에는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이종환 회장 등 연세가족들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설교는 박광철 목사(도미니카공화국 월드미션대학교 총장)가 전했다.

정확하고 최고로 빠른 리페! 5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의 진료 수준 별 5개의 최우수 등급 메디칼 그룹!

시니어분들이 건강 영웅! 서울메디칼그룹

메이저 리그 코리아인 특급 박찬호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투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은 언제?

2023년 새해를 맞은 가운데,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각 교단, 교회별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등 다양한 교회 절기를 공유하고 있다.

먼저 1월은 1월 6일 주현절(主顯節, Epiphany), 01월 08일 주님의 수세주일이 있다. 공현절(公現節)이라고도 불리는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공생애를 개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영국 등 서방교회에서는 이 축제일을 그리스도가 동방의 3박사에게 나타난 날로서, 주현절을 탄생 후 12일째 되는 날이라 하여 12일째(祭)라고 한다. 수세주일이란 주현절 후 첫째 주일을 말한다.

2023년 재의 수요일은 2월 22일이며, 사순절 첫 주일은 2월 26일이다. 사순절이란 '40일'이라는 뜻으로,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한다. '재의 수요일'은 '참회의 수요일'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불린 이유는 이날 예배에서 재(Ash)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재'는 참회와 회개, 유한성, 정화와 순수, 농경문화에서는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 등을 의미한다.

4월 2일은 종려주일(棕櫚主日, Palm Sunday)이다. 부활절을 1주일 앞둔 주일로, 예수

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돼 있다(마 21:1-11, 막 11:1-11, 눅 19:28-38, 요 12:12-19).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 직전까지인 4월 3~8일은 고난주간(苦難週間, passion week)이며, 4월 7일은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聖金曜日, Good Friday)이다. '수난주간(受難週間)'으로도 불리는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다.

4월 9일은 부활절(復活節, Easter)이다. 2세기 중엽부터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로 자리잡은 부활절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남을 기념하는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중심 교리이다.

5월 7일은 어린이 주일로, 미국 감리교와 미국 장로교는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한국교회는 6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다 1925년부터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다.

5월 14일은 부모 주일(父母主日, Parent's Sunday)이다. 미국에서는 1914년 미국 상원의 결의와 윌슨 대통령의 선언으로 어머니 주일이 공포되었고, 한국교회는 1930년 6월

15일에 구세군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주일을 지켰고, 1932년 감리교 연합연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주일'로 지킬 것을 정식 결의한 후 다른 교파에서도 5월 둘째 주일을 '부모주일' '아버이 주일' 또는 '어머니 주일'로 지키기로 했다.

5월 28일은 성령강림절(聖靈降臨節, Whitsunday), 6월 4일은 삼위일체주일(三位一體主日, Trinity Day)이다. 성령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50일째이자 승천 10일째 되는 날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행 2:1)이다. 성령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꼽힌다. 특히 성령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로 기념되고 있다. 성령강림절은 유대교의 3대 절기인 '오순절(五旬節, Pentecost)'과 같은 날이기도 하다. 삼위일체주일은 성부·성자·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첫날임을 기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한 주일로, A. D. 10세기 전후부터 지켜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월의 첫 주일 7월 2일은 '맥추감사주일(맥추감사절, 맥추절)'이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후 7주째 지켰다고 해서 '칠칠절(七七節, 출 34:22; 신 16:10)'이라고도 했다. 맥추감

사절은 보리와 모래 추수가 이뤄진 직후 행해지던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인 맥추절을 본 딴 것이나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의견도 많다.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은 말 그대로 한 해의 추수에 대해 감사하고자 시작한 절기로, 교회에 따라 10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셋째 주 사이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 한국교회 대부분은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 20213년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19일인 셈이다.

12월 3일은 대림절(降臨節, Adventszeit)의 첫 주일이다. 대림절이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대림시기, 대강절, 강림절로도 불린다.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하기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다.

12월 25일은 성탄절(聖誕節)로 말 그대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다. 성탄절이 보편적인 절기로 굳어지게 되는 것은 4세기경으로,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확정하고 성탄절로 지켰다. 우리나라는 미군정 시절 12월 25일을 공휴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신의 기자

한신대, 신학분야 최초 온라인 석사과정 승인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신학대학원(원장 전철)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신학일반 석사과정' 신입생 20명을 모집해 온라인으로 석사과정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을 참여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한신대는 지난 12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대학'에 신학분야 최초로 온라인 석사과정 승인을 취득했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한국 신학과 기독교 인문학의 산실인 한신의 신학을 온라인으로 국내외 직장인과 일반인 모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국내외 신학과 기독교 인문학 교수진이 제공하는 양질의 신학·종교·인문학 강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한신대 신학대학원 '신학일반 석사과정'은 2년 과정의 신학석사 학위로 재학생 전원에게 50% 장학금과 해외 교환학생 특전을 제공하며, 신학 전문 미디어센터의 설립을 통해 양질의 신학 인문학 강좌를 강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 디아스포라 신학과정을 통해 해외 일반인과 평신도들도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체 100% 온라인으로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신입생 모집은 오는 2023년 1월 18일에서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한국 02-2125-0114 장지동 기자

“도마복음? 인간 죄 문제 다루지 않는 영지주의 작품”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이른바 '도마복음'에 대해 "복음이 아닌 독약과 독초"라며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영지주의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5일 발표한 관련 논평에서 "최근 언론에 '도마복음서'가 나왔다고 중요 일간지에 광고가 나오면서, 도대체 도마복음이란 뭔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그런데 이런 논란은 10여 년 전에도 있었다. 이제는 좀 잠잠해지는가 했는데, 또 다시 전 유명 신학대 교수가 추천사를 썼다면서 책이 소개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연 66권 성경 속에 포함된 것도 아닌데 복음이라고 주장하고, 또 기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썼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4복음서와 같은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미 1,600년 전에 정경(正經)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또 다시 끼집어내서 '기독교가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선전(宣傳)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책의 문제점은 추천자들이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추천사에서도 드러난다. A교수는 '도마복음서는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증언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어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또 다른 추천자 B목사는 '불가분의 진리는 하나로써 보편적이라는 것과 불교의 가르침인 신심명의 내용과 예수의 영적인 가르침이 본질적으로 같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며 "기독교의 진리와 불교의 진리는 결코 하나가 아니다. 이는 종교다원주의이며, 종교혼합주의이다. 그리고 보면 도마복음이란 것이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저자는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기독교계와 학계에 강한 충격을 준 도마복음은 믿음을 넘어서 영적인 신성의 깨달음, 즉 하나의 진리를 강조한다'고 하여, 기독교에서의 구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가 아닌 타종교에서 주장하는 '깨달음'으로 몰아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간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 도마복음서라는 것이 발견된 것은 20세기로, 1945년 이집트 나일강 상류 지역의 낙하마디(Nag Hammadi)의 절벽에서 한 농부가 발견한 항아리 속의 몇몇 문헌들 가운데 들어있었고, 이 책들은 4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도마복음서는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靈智主意)적인 작품으로 평가한다"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영적 지식'이나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과 다른 것이다. 예수께서 처음부터 외치셨던 말씀은 죄와 구원과 상관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다"고 했다.

언론회는 "도마복음은 결코 '복음서'로 볼 수 없고 그러므로 인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흔들려는 독약(毒藥)이요, 기독교의 신앙을 망가트리려는 독초(毒草)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11달러?! 전기세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빨리 설치할 수록 많이 절약합니다.

BTS SOLAR DESIGN

213.500.8000

“한교연이 ‘예수한국 복음통일’에 앞장서 주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6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2023년 신년감사예배 및 신년 축하 하례회를 가졌다.

김병근 목사(상임회장)가 인도한 1부 신년감사예배에선 이영한 장로(상임회장)가 기도했고, 홍정자 목사(서기)의 성경봉독 후 정광식 목사(공동회장)가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이병순 목사(공동회장)가 '민족복음화 및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이상호 목사(법인이사)가 '차별금지법(안) 및 악법 철폐를 위해', 김혜은 목사(공동회장)가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과 예배 회복을 위해', 윤영숙 목사(총무협회장)가 '한교연의 연합과 화합을 위해' 각각 특별기도했다.

이어 천대훈 목사(인지교회)가 특별찬송을 한 뒤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설교했다. 전 목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선 두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하고 있다”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존재할 수 있다. 국가가 무너지면 신앙생활도 불가능하다”며 “한교연이 일어서서 이 나라가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되는데 크게 앞장서 주



한교연 주요 임원들이 신년을 기념하는 떡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기독교일보

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김고현 목사(총무)가 광고한 뒤 참석자들이 찬송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이'를 부른 다음, 원종문 목사(명예회장)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조성훈 목사(상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신년 축하 및 하례회에선 먼저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참석자들을 향해 큰절을 하는 것으로 신년인사를 대신했다. 이어 구순연 선교사(국약찬양위원장)의

특별찬양 후 김요셉 목사(한교연 초대 대표회장)가 축사했다.

김 목사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한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원수된 우리 인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다”며 “한교연 신년하례식을 통해서 새로운 섬김과 희생의 결단과 각오가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소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각 회원과 교단, 또 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최귀수 목사(한교총 사무총장)가 한교연 신년사를 낭독했다. 한교연은 신년사에서 “한국교회가 지난 한 세기에 이룩한 부흥, 성장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자 무거운 과제였다.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 하는데 외형과 규모가 커지는 데 만족하다 영적 교만이 찾아왔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 공로, 이생의 자랑으로 둔갑시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의미를 무가치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교연은 “그러므로 2023년 새해 새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죄인을 불러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라고 하셨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봐야 하겠다”고 전했다.

최 목사의 신년사 낭독이 끝난 뒤 한교연 김훈 기획홍보실장의 인도로 참석자들이 서로 신년 인사를 나눴다. 이후 김바울 목사(명예회장)의 마침기도와 단체 기념촬영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진영 기자

‘내정설’ 까지... 초미의 관심사 된 총신대 총장 선출

총장후보추천위, 5일 첫 회의... 위원장에 송태근 목사

총신대학교 새 총장 인선이 교단(예장 합동)과 총신대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학내에선 교단 인사가 총장이 될 경우 학교가 교단 정치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교단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신대 특성을 감안해 교단 인사를 배제해선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법인이사 8명과 총회 임원 5명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된 총신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는 5일 오후 서울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첫 모임을 갖고 위원장에 송태근 목사(삼일교회)를 선출하는 등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앞으로 18일까지 총장 후보를 모집한 뒤,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3인을 총신대 법인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5월 25일 총신대 제21대 총장으로 취임한 현 이재서 총장의 임기는 오는 5월 24일 까지다.

그런데 이날 회의가 열린 사당캠퍼스 종합관 1층 로비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협회의 ‘제22대 총신대 총장 선출에 즈음하여 드리는 글’이 붙었다.

신대원 교수협회는 이 글에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총추위 자체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총추위원) 23명 중에 이사와 총회(임원)를 합치면 13명으로 과반수”라고 했다. 이들은 “총추위 구성을 보면,

이번 총장 선출은 총장 후보 추천부터 재단(법인)이사회가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했다.

교수협은 “이번 총장 선출이 진정 총신대와 교단의 미래보다는 또 다시 정치판의 야합이나 혹은 대결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결국, 교수나 직원 그리고 학생 대표로 나온 총추위 위원들은 들러리 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이사회와 총회 측이 특정 교회의 한 목사를 차기 총장으로 이미 내정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면서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교수협은 “총장은 학교라는 현장을 알아야만 하고, 교수와 직원, 학생들을 이끌어야만 하며,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며 “그렇기에 총신대 총장은 학교의 정체성을 고려해건대, 개혁신학으로 무장된 학자이자 목사이자, 난세에 지혜로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지나친 정치적 결정만 아니라면 총장 선출에서 교단 목회자 자체를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교단 신학교’라는 총신대의 특수성, 그리고 총장은 일반 교수와 달리 경영 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학적 소양과 교단·목회 현장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 총장이 될 필요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총신대의 제22대 총장 초빙 공고에 따르면 총장 후보 응모 자격은 △예장 합동 소속 세례(입교) 교인 △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총신대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총신대 사당캠퍼스 종합관 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일보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다. 또한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전·현직 정교수로, 교수(전임교원) 7인의 추천을 받은 자 △목사 안수 후 무흠한 20년 경과한 자로, 교수(전임교원) 7인의 추천을 받은 자 △개혁주의 신앙에 투철한 인사로 총추위 위원 3인의 추천을 받은 자다.

즉 총신대 교수가 아니어도 이 학교 총장 후보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총신대 교수는 물론, 그의 교단 목회자 이름이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총추위원장에 선임된 송태근 목사는 이날 총추위 첫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이 될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 23분의 (총추위) 위원들이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겠다”며 “일선에서 말하는 그런 계파나 한 개인의 고집이 작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섬기겠다”고 말했다.

특정 인사가 이미 총장으로 내정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들이 전혀 작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총추위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견에는 “중간에 틀을 바꾼다는 건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 건강하게 좋은 안들이 모아지도록 섬길 것”이라고 했다.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잘 청취하겠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CDTV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미국 성인 3명 중 1명 종교예배 참석”

갤럽, 미국 성인 2천명 대상 설문 조사 18-34세 무교인, 종교적 관심 가장 높아 어려서는 교회 출석 67%, 커서는 31%...나아들어 “절반 뚝”

미국 성인의 3명 중 1명이 종교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유년 시절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갤럽(Gallup)이 작년 7월과 8월 18세 이상 미국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31%는 “교회, 유대교 회당, 모스크 또는 사원에 매주 또는 거의 매주 참석한다”고 답했다. 반면 어린 시절 예배에 참석했다는 미국인은 67%로 과거에 비해 현재 출석률은 절반 이상 줄었다.

조사 대상 성인 5명 중 1명은 예배에 매주 참석하고 있으며, 9%는 거의 매주 참석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종교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거나(25%) 전혀 참석하지 않는(33%)는 응답자는 과반수를 넘었다.

어려서 부모님이 자주 예배에 참석했다고 기억하는 응답자는 67%로 나타났다. 반

면, 현재 18세 미만 자녀를 둔 성인 중에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은 31%로 조사됐다.

갤럽은 조사 결과가 “최근 수십 년간 미국 종교의 급격한 감소를 기록한 이전 연구와 일치한다”면서 “이러한 감소는 특정 종교적 믿음이 없는 미국인이 증가할 때에 발생한다”라고 분석했다.

2022년 갤럽의 모든 조사에서 선호하는 종교가 없는 미국 성인은 5명 중 1명(21%)으로, 2000년(8%)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갤럽은 오늘날 독실한 미국인이 과거에 비해 예배에 정기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성인이 되어서도 예배에 가는 비율은 38%로 나타났다. 반면, 좀처럼 예배에 가지 않거나(24%), 더 이상 가지 않는 성인

(26%)이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어릴 때 교회를 자주 다녔던 성인(38%)은 다른 성인에 비해 지금도 예배 출석률이 가장 높았다. 어릴 때 한 달에 한두 번 교회를 다녔던 성인(23%)이나 거의 또는 전혀 가지 않았던 성인(16%)은 예배 출석에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갤럽은 “어려서 거의 또는 전혀 참석하지 않던 대다수는 오늘날 예배에 거의(24%) 또는 전혀(56%) 참석하지 않는다”라며 “유년기와 성인기에 저조한 출석이 정기적인 참석보다 상관관계가 더 강하다”라고 보고했다.

어린 시절, 매주 또는 거의 매주 교회에 참석한 경험은 35세 이상의 성인은 70%, 35세 미만 성인은 58%로 나타났다. 특히 35세 미만 성인 중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예배에 참석하거나(34%)와 참석하지 않는(33%)은 비율은 거의 동일했다.

무교인을 대상으로 향후 종교에 대한 관심을 묻자 13%는 “조금 관심이 있다”, 9%는 “적당히 관심이 있다”, 3%는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교인 3명 중 2명(75%)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무교인 중에서 종교에 대한 관심도는 젊을수록 중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18-34세 무교인 중 종교를 알고 싶다는 비율은 18%인 데 반해, 35-54세는 9%, 55세 이상은 6%만이 관심을 보였다. 갤럽 측은 “이 결과는 젊은 층이 연장자보다 자신의 방식에 덜 확고하며,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바뀔 가능성에 열려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분석했다.

학력별로는 종교가 없는 대졸 이상 졸업자(4%)가 고졸 학력자(17%)에 비해 종교에 대한 관심이 현격히 낮았다.

갤럽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미국은 10명 중 7명꼴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을 포함해 약 80%가 종교적 소속이 있는 종교 국가로 남아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종교 정체성, 교인 수, 교회 출석이 급감한 것을 감안할 때 과거보다 분명히 덜 종교적인 국가”라고 진단했다.

김유진 기자

존 맥아더 목사, 병환으로 주일설교 2주째 중단



2022년 3월 9일 미국 LA 선밸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의 존 맥아더 목사가 웨스턴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Shepherdsconference

미국 LA 선밸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의 존 맥아더 목사가 지난해 12월 23일 병환으로 인해 2주째 주일 설교를 쉬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2일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는 올해로 83세인 맥아더 목사의 건강 상태가 호전 중이라는 소식을 알렸다. 교회 측은 “그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 그는 일요일 오후에 의사를 만났고 건강은 양호하며 바쁜 연휴 기간에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공지했다.

교회의 한 장로는 지난 1일 주일 예배에서 맥아더 목사가 1부 예배는 설교했지만, 불특정한 질병으로 인해 2부 예배 설교는 할 수 없다고 교인들에게 알렸다.

뉴스 매체인 프로테스티아(Protestia)에 따르면 이 장로는 “알다시피, 존 목사님은 이번 주에 병이 생겨 1부 예배는 설교를 했지만 2부 예배에는 쉬어도 되는지를 물으셨다”라고 밝혔다. 2부 예배는 맥아더 목사를 대신해 이웃리치 사역부 목사인 마이크 리카르디가 설교했다.

존 맥아더 목사는 캘리포니아주 바이올라 대학교의 탈봇 신학교를 졸업한 뒤, 1969년부터 올해로 53년간 이 교회를 담임하며 3천 회 이상 설교했다. 김유진 기자

美 UMC 보수 성향 단체, GMC 출범에 “우리 목표 달성”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내 신학적으로 전통적인 그룹은 최근 새로운 보수 성향의 감리교 교단의 출범을 그들이 한 일의 성취로 보고 문을 닫았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1994년 결성된 연합감리교회(UMC) 내의 비공식적이고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단체인 ‘고백운동’(Confessing Movement)은 지난해 새해 전야에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고백운동의 전무이사를 역임한 패트리샤 밀러는 최근 CP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세계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가 형성되면서 그들의 작업이 완성되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밀러는 “우리의 목표가 달성됐다고 느낀다”라며 “세계감리교회의 출범으로 신실한 교단을 향한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믿는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연합감리교회가 우리의 교리와 아들이시며 구세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신실해지는 것이었다. 지금 세계감리교회는 그것에 충실하다. 세계감리교회는 갱신 그룹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다.

밀러는 또한 CP에 고백운동이 12월 31일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지만 은행 계좌를 닫고 전화를 끊는 등 폐쇄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러는 “우리의 사역이 세계감리교회와 함께 완성되었다고 믿는다”라며 “우리가 포기한 것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종교와 민주주의 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 Democracy, IRD)의 마크 툴리(Mark Tooley) 회장은 CP와의 인터뷰에서 “(고백)운동은 특



지난 2019년 2월 24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UMC 특별총회 모습. ©UMC

정 목적을 가진 그룹이 무한정 계속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갱신 운동은 더 이상 옛 교단을 갱신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지금 이탈하는 교회를 돕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통적 감리교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백 운동은 어려운 수십 년 동안 UMC 내 공동체로서 전통적인 감리교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는 그들의 유산에 감사하며, 이는 세계감리교와 다른 매체를 통해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UMC 총회에서 대의원으로 활동한 IRD의 존 토퍼리스는 CP와의 인터뷰에서 “고백운동이 폐쇄된 날은 우리 교단 역사상 매우 슬픈 날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핵심 교리가 UMC의 많은 곳에서 포착된 것처럼 보였을 때, 고백운동은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웨슬리 신학을 옹호하는 탁월하고 명료하며 영향력 있는 목소리로 등장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몇 년 동안 UMC는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분열적인 내부 논쟁에 휘말려 왔다고 CP는 전했다.

연합감리교회(UMC)가 동성애자 결합의 축복과 동성애자 안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단 내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공식 규정을 따르기를 거부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지난 5월 세계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는 연합감리교회(UMC)의 보수적 대안으로 출범했고, 수백 개의 연합감리교회가 새 교단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미경 기자

“250명 미만교회가 주목할 5가지 긍정적 추세”

미국의 교회 성장 전문가인 톰 레이너(Thom S. Rainer) 박사가 2일 처치앤서스(Church Answers)에 ‘예배 참석자가 250명 미만인 교회를 위한 5가지 중요한 국면’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레이너는 칼럼에서 “평균 예배 인원이 250명 미만인 교회가 미국 전체 교회의 92%를 차지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표준교회(standard church)라고 부르는 데, 이유는 교회의 8%를 제외한 교회 전부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경향과 발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표준교회와 관련된 5가지 주요 추세이다.

1. 동네교회와 시골교회로 이동할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참석자가 더 큰 교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격리 이후의 시대는 사람들이 더 큰 활동을 위해 많이 이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근하지 않으려는 더 큰 갈망을 가져왔다. 또 많은 이들은 더 작은 마을과 시골 지역의 조용한 삶으로 옮겨갔다. 이는 새로운 거주자들과 더 작은 교회로 가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2. 큰 교회들은 작아짐으로써 성장하고 있다.

지교회 운동(multisite movement)은 20년 전 교회의 관행을 벗어난 극적인 변화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는 거의 모두 한 장소에서 성장하기보다 지교회 수를 늘림으로써 성장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장이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참석자들이 더

작은 교회 또는 모임을 선호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3. 표준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극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한 명 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을 듣게 될 때 큰 힘을 얻는다. 다음은 내가 최근에 쓴 글에 올라온 댓글이다.

“나는 5명의 방문자가 교회에 오기를 기도했는데 10명이 왔다. 고백컨대, 나는 물론 우리 작은 교회의 교인들도 충격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르신 일에 대한 열심을 회복했다. 나는 여러분이 쓰는 모든 것을 듣고 읽고 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샘(레이너, 처치앤서스 회장)으로부터 그 일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당신

이 초대하면 그들이 온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정말 그랬다!”

4. 표준교회는 자기 교인을 교육하고 훈련할 기회를 갖게 됐다.

과거에 표준교회는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면 교회 밖에서 사람을 고용해야 했다. 이제 교회 현장에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자원을 보유한 많은 선택지가 있다.

5. 많은 표준교회가 전도로 복귀한다.

이러한 교회들은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응답할 때,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또 다가갈 것이다. 전도는 더 큰 교회만의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명령이다.

어떤 이들은 표준교회가 가진 문제들만 본다. 나는 넘치는 희망과 약속을 보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교회에서 손을 놓지 않으신다.

김유진 기자

국제종교자유위 “사우디 권력이동, 종교자유 위기”

미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 자유위원회(USCIRF)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종교적 자유가 우려되는 국면을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권력이동이 종교 기득권층에서 지배 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정부의 개혁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분위기는 일부 호전되었지만, 시아파 무슬림, 기독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및 기타 비이슬람 공동체는 여전히 사우디에서 제한받거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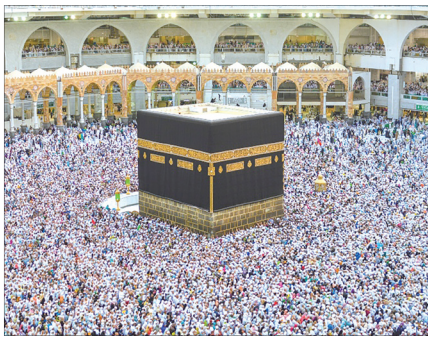
USCIRF는 성명에서 “종교 기득권층에서 지배 가문으로의 계속된 권력 이동은 남성 후견인법(Guardianship Laws), 교과서 및 종교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정책에 대한 개혁의 기회를 만들었다”라며 “반면 평화로운 종교적 반대에 대한 재심과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는 사우디의 개혁을 약화시키는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단체는 사우디가 “수니파 이슬람에 대한 단일 해석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긴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면서 “수니파 반체제 인사들에게조차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고 했다.

한 예로, 10여 년 전 종교적 차별 반대 시위에 참석한 시아파 무슬림들은 현재까지 법적 소송 중이거나 투옥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형을 언도받은 일부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USCIRF는 “기독교인, 유대인, 불교도, 힌두교도 및 기타 비이슬람 공동체들은 사우디에서 예배당을 짓거나 공공장소에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 보고서는 사우디에서 비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공공예배가 계속 금지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모스크인 마사지드 알하람(Masjid al-Haram), dAdli Wahid/ Unsplash.com

고 있으며, 이들 공동체가 치안 당국의 괴롭힘을 당하는 횡수는 과거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이며 수니파에 속해 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사우디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은 약 150만 명이며 주로 타국인이다. 사우디의 건국 이념인 와하비즘(Wahhabism)은 이슬람 전통주의를 고수하는 ‘극보수주의적’ 지배 형태를 띠고 있으며 선교활동은 엄격히 금지한다.

보고서는 사우디가 종교적 자유를 “국 제법에 따른 보장된 권리가 아닌 국가가 부여한 특권으로 취급한다”면서 이러한 관행이 “비즈니스 및 관광의 국제적 중심지가 되기 위한 사우디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우디 정부는 종교적 기반의 남성 후견인 제도에 의미 있는 초기 개혁을 단행했지만, 여성을 평생 법적 미성년자로 규정하는 것을 구조화하고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끝으로 “미국 정부가 사우디 정부 관리들에게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 또는 사적으로 계속 표명할 것”을 권고했다. 김유진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Pastor: 오명찬. Services: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Eunhye & Pyeonggang Church. Pastor: 박덕근. Services: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Pastor: 최혁. Services: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연구회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충현선교교회 Chunghyun Mission Church. Pastor: 국윤권. Services: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8:0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가디나장로교회 Gardena Presbyterian Church. Pastor: 신태섭. Services: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자부예배 오전 11:00, 유자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가디나선교교회 Gardena Mission Church. Pastor: 이호민. Services: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고등부 예배 오전 8:40.

대홍장로교회 Daehong Presbyterian Church. Pastor: 김정훈. Services: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둘로스교회 Duluth Church. Pastor: 서보천. Services: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은혜로교회 Eunhyero Church. Pastor: 김경환. Services: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만찬회 오후 1:00.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Pastor: 이종용. Services: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토렌스 조은교회 Torrance Jo Eun Church. Pastor: 김유준. Service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창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Torrance Jeil Presbyterian Church. Pastor: 고창현. Services: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나이지리아 카두나주서 기독교인 1명 살해 · 53명 납치돼



나이지리아 남부 카두나주. ©위키피디아

리가 들릴 정도로, 풀라니족 테러 공격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됐다”며 “이 지역은 2011년부터 2022년 12월 23일까지 13건의 치명적인 공격을 겪었다”고 했다.

풀라니목자들 테러리스트들이 지난 12월 18일에도 말라굴에서 40명의 기독교인을, 12월 23일에는 카고로에서 또 다른 3명의 기독교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이지리아와 사헬 지역에 걸쳐 수백만 명이 달하는 무슬림 풀라니족은, 극단주의적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 다양한 혈통의 수백 개의 씨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풀라니족은 급진적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있다.

영국 국제 자유 및 신앙에 관한 초당파 의원그룹(APPG)의 보고서는 “무슬림 풀라니족은 보코하람과 ISWAP(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역)에 필적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기독교인과 기독교 정체성의 강력한 상징을 표적으로 삼으려는 분명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목자들의 공격이, 기독교인의 땅을 강제로 점령하고 사막화로 인해 목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이슬람을 강요하려는 그들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픈도어의 2022년 기독교 박해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최근 몇 년 동안(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살해된 기독교인의 수가 4,65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납치된 기독교인의 수는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높은 2,500명 이상으로 전년도의 990명보다 증가했다. 나이지리아는 교회 공격 건수가 470건으로 중국에 이어 중국에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세계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국가 목록에서, 나이지리아는 전년도 9위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7위로 뛰어올랐다.

김유진 기자

세리토스선교교회 Seritos Mission Church. Pastor: 방상용. Services: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토요일) 오전 9:00.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ja@gmail.com

감사한인교회 Thanksgiving Church. Pastor: 구봉주. Services: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 오후 7:30, 정애민예배 오전 11:30, 한어(한/중/영어)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남가주동신교회 Namga Jo Dong Shin Church. Pastor: 백정우. Services: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N) 오전 9:30, 창년예배 오후 1:30.

주님의빛교회 Your Light Church. Pastor: 주혁로. Services: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늘푸른선교교회 Neulpeurneun Mission Church. Pastor: 안창훈. Services: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3부예배 오전 11:20, 교목부예배 주일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다우니제일교회 Downey Jeil Church. Pastor: 지영환. Services: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Laguna Hills United Methodist Church. Pastor: 임혁훈. Services: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직서서 오전 9:30(금), 창년예배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베델교회 Bethel Church. Pastor: 김한요. Services: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얼바인온누리교회 Elgin Onnur Church. Pastor: 박신용. Services: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예배 오후 1:00, KM대림창년부 오후 2: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Orange County Korean Church. Pastor: 남성수. Services: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은혜한인교회 Eunhyehan Church. Pastor: 한기홍. Services: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성명회 오후 8:00.

함께 걷는교회 Hamaekkeun Church. Pastor: 박훈. Services: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ja@gmail.com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부활 소망의 신앙(2)

사도행전 13장 29-43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29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31 갈릴리로 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32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중략)...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람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40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과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42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 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예수님께서서는 10여차례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서 예수님 살아계심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리에서 살려 내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나이다”(시편 16:10)
 다윗은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열심히 섬기다가 죽어서 그 조상들과 땅에 묻혀 썩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이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람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 죄를 대신 벌 받아 죽임 당하셨다가 무덤에 사를 계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 구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일러준 말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어로 ‘Jesus.’ “예수”라고 하는 두 글자 그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는 뜻이 그 이름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이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해 낼 사람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그토록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 그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과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41”(행 13:39~41)
 하박국 1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강포와 죄악을 일삼고 못된 일을 스스럼없이 행하고 도저히 믿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애가 타도록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살면 안되는 것을 알고 그들이 지은 죄를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중단시켜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용서 받게 해주라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못된 행동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할 것 못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과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찌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예언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행13:42)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설교를 마치고 나가니까 무언가 듣고, 귀가 열리기 시작했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 한 것입니다.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행13:43)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편 16편 10절에 저가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 시켜 주신다는 이 예언을 묘하게도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인용했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25-33절까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힘 있게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따라 다녔고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적 기사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사도바울을 사로잡아 붙들어 쓰시는 성령님이나, 수제자 베드로를 사로잡아 붙들어 사용하시는 성령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질적인 사건이었다고 아주 힘주어 확실하게 증거하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부활 소망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저가 죽었으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예언 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 부활 했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도 설교하면서 외쳤으며 사도 바울도 전도 설교할 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성령에 붙잡혀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성령에 붙들려 쓰임 받는 종들은 자기 생애를 부활 복음을 전달하기 위

해서 아낌없이 바치며 희생과 수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 사도바울이 받았던 성령은 지금도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지옥까지 않게 전도해서 생명의 부활로 꼭 하늘나라 가게 하도록 전도 대상이 생각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를 쓰고 부활 소망의 신앙을 에타게 전한다면 그 사람도 같은 성령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부활 소망의 신앙, 믿어지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고, 하늘나라 갈 확신과 소망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투자해서 부활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온전히 헌신하며, 봉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쓰셨던 성령, 사도 바울을 쓰셨던 성령, 지금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계시는 성령,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18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했으며, 에베소서 5장18절에는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들의 생활이 하늘나라로 직행하기만을 힘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욕 때문에 죄지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세의 소망을 목적으로 살아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살아지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하늘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혜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30년간 사고당당히 받아주신다면 평생당당히 알려드립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양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닭, 오뎅, 떡볶이,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강준민 칼럼

목표를 글로 쓰는 사람의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의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목표를 성취하셨습니다. 그 목표가 성취될 때마다 기뻐하셨습니다. 행복해하셨습니다. 성경은 거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4, 10, 12)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창 1:31).

창세기에서 표현하는 "좋았더라"는 "행복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셨을 때 행복해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하나님은 타

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 구원의 목표를 정하셨습니다. 그 목표를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표를 이루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목표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으십시오. 많은 분들은 목표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목표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목표지향적으로 살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목표는 삶의 방향입니다. 목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목표는 강력한 소원입니다. 목표는 꿈입니다. 평생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고, 매년, 또는 매달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매일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변화와 성장의 동력입니다. 변화와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와 성장은 의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쉽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둘째, 목표를 설정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이란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장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축구를 잘하거나 당구를 잘하기 위한 목표를 세

우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기 위해 거기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헌신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렐 3:15). 저는 목양을 잘하기 위해 지식과 명철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식과 명철을 위해 늘 성경을 가까이, 책을 가까이하며 살고 있습니다.

셋째, 기도하면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목표를 설정할 때는 가치 있는 목표,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가족들을 유익하게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선한 목표는 선한 결과를 낳고, 나쁜 목표는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나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나쁜 목표를 이루어 자신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선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와 자원과 사람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목표를 설정한 후에 목표를 글로 쓰도록 하십시오. 미국에 와서 존 맥스웰의 책을 읽는 중에 목표를 글로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1953년, 미국 예일대에서는 졸업반의 3%의 학생만이 구체

적으로 인생의 목표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1975년, 이 연구 결과, 인생의 목표를 써냈던 그 3%의 학생들은 나머지 97%의 학생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목표를 성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존 맥스웰, 『열매 맺는 지도자』, 두란노, 28-29쪽). 목표를 글로 쓴다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러 모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만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섯째, 목표를 설정한 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 계획을 세워 날마다 시도하는 것입니다. 큰 건축물도 벽돌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책 한 권도 한 줄의 문장을 쓰는 데서 시작됩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큰 목표는 작은 목표가 축적되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마다 반복해서 정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최소한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를 양육하고 남기는 것입니다. 책을 쓰고 출판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목표를 세우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다시 결심하십시오. 다시 시도하십시오. 새 해에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김한요 칼럼

새해 기초공사, 완성했습니다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초는 땅 아래 있기에 눈에 보이지 않아 간과할 수 있지만, 기초가 튼실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운지 장식은 주춧돌을 다진 후에 하는 일입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붕괴되는 아파트, 무너지는 다리

등 기초가 부실해서 일어나는 참사는 처절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기초의 중요성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역들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다지는 작업은 항상 신년 벽두에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이상 열새)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베델의 첫 만남도 열새였습니다. 10년째 베델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10대 행사 등 의미 있는 일도 많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도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열새로 시작한 한 해는 기도의 열매로 가득가득했습니다. 그 누구에게 공로를 드릴 수 없음을 열새 때 함께 부르짖고 시작한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작년에 부인할 수 없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신학강좌 때에도, 임직자 선출을 위해서도, 우리는 금식하며 특별새벽기도회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행사를 하나 더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더욱 흔들림 없는 기도의 기초 위에 세우고 싶은 단순한 열망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의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담임목사로써 꼭 이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열새와 함께 출발하는 새해는, 한 해를 세우는 건물의 기초 공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획하고 꿈꾸고 설레는 한 해를 그 어느 현란함이 아닌 기도의 반석 위에 세우고 싶은 소망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연중

행사이니까 특별한 생각 없이 하던 일 한 다는 마음이었지만, 열새의 은혜를 경험한 저로서는 오�히려 열새가 기다려지는 시간, 기다려지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쉼 쉼하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기도의 외침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사역의 야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쉬 없이 타고 있다고 믿었던 기도의 불에 기름을 붓듯, 다시 활활 타오르는 영성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물을 만드는 기초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실력이 늙니다. 기본기가 흔들리면 인생의 패전만 거듭할 뿐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하면 마귀와 싸워 백전백승입니다. 새해는 기도의 자리, 거기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Always be there!!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새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진유철 칼럼

일어나 벨엘로 올라가자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은 오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야곱은 온전히 깨어진 믿음, 즉 Not I But Christ!를 이루지 못해서 아버지

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캄캄한 밤 혼자 두려워하는 벨엘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3가지의 약속, '땅을 주겠다.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창28:13-15)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창 32:7a) 힘들어 했는데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셋으로 나누고 많은 짐승들을 떼로 나누어 형에게 예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차하면 도망치기 위해 압복 나무를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도대체 질 생각을 안 하는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매

하지만 야곱은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 형 에서의 청을 거절하고, 세겜으로 가서 10년을 삽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살았던 창세기34장에는 하나님이

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믿는 삶이었고 세속과 타협하여 성공을 이룬 삶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두 마음의 신앙' 또는 '경계선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시내 구경을 나갔던 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방인인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 가만히 있었는데,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할레 받게 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을 다 죽입니다. 이제 그 땅에 있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한 지경이 되고 10년 동안 세겜에서 쌓은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잘되는 것 같은데도 늘 불안하고, 또 잘 된 줄 알았는데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타협하는 신앙, 두 마음을 품는 경계선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 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일어나 벨엘로 올라가자" "let us arise, and go up to Bethel" (KJV) 벨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벨엘에 올라간 창세기35장에만

하나님이란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비로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고, 야곱의 인생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야곱은 벨엘에서 다시 벨엘로 돌아오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 은혜도 받았는데, 아직 빙빙 돌면서 세상눈치 보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신앙과 삶을 Not Bad, Good 이 정도에 만족하고 있다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특별한 단장과 준비를 잘하는 것처럼, 지금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들을 부르러 오실 말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일어나 벨엘로 올라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벨엘에 올라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리가 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생깁니다. 2023년은 우리 가정 모두 함께 '일어나 벨엘로 올라가자'고 외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기독교 지도자들의 친일행각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일제의 억압이 심해지면서 교회, 노회, 총회가 조직을 통하여 친일했던 일들은 다반사였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원하여, 혹은 원하지 않았지만 강제에 못 이겨 친일행각을 벌인 일이 비밀 비재하였다. 대부분 일제의 협박, 회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으리라 믿지만, 후세의 역사에서 동정만으로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들의 그런 행동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 교회와 일반 사회에까지 파급되어, 교회에 환멸을 느끼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비기독교인 민족주의자들도 그들의 친일행각에 역겨움을 느끼는 정도였다.

1937년 9월 총독부는 각 도에서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면서 저명한 기독교계

인사들을 동원하고 있었다. 이에 동원된 인사들 중에는 신흥우, 유형기, 윤치호, 박희도, 차재명 등이 끼어 있었다.(民族政經研究所, 「親日群像」, 1948쪽.)

또한 정춘수, 김중우, 김우현, 차재명, 이명직, 양주삼, 이동욱 등이 일제에 협력, 친일하는 어용기관이었던 조선기독교연합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3·1 독립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었던 박희도가 친일파로 전향, 「동양지광」(東洋之光)이라는 친일적 잡지를 간행하면서 일제에 부역하는 친일적 논설을 연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 몇 개의 제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백낙준 : 미·영의 민정과 식민 정책
 - 신흥우 : 영국인의 민족성
 - 전필순 : 미·영인의 민족성
 - 이용설 : 미국인의 민족성
 - 정춘수 : 미·영인의 종교 정책
 - 정인교 : 미·영인의 종교 정책
 - 양주삼 : 미국은 왜 싸우는가?
 - 박희도 : 일본은 왜 전쟁하는가?
 - 박인덕 : 미국 부인의 전쟁관
- 1937년 중·일 전쟁부터 시작하여 징용제도, 징병제도, 근로보국대, 근로동원제, 여자 정신대 등의 명목으로 1945년 해방 때까지 무려 146만 명의 청장년들이 징

용되어 광산, 토목공사, 군수공장에 투입되었으며, 무보수로 노예와 같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다. 손인수, 「원한경의 삶과 교육사상」, 238쪽.

징병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1942년 복음교회의 최태용은 「동양지광」에 '기독교인의 재출발'이라는 논설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아부하였다.

조선을 일본에 넘긴 것은 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을 섬기듯이 일본 국가를 섬겨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국가는 일본 국가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다해야 할 국가적 의무와 지성은 이를 일본 국가에 바쳐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일본국에 바치도록 신에게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징병제 실시가 그것이다.(林鍾國 編, 「親日論說選集」, 346쪽.)

징병제가 신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한국 목사가 했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을 못했겠으며, 더 이상 무슨 민족의식이나 기독교인으로서 나라 사랑의 정신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징병제에 대한 찬양의 소리는 각처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여성 지도자들까지 동원되고 있었으니, YWCA의 유각경은 어머니 자신부터 가질 대화혼(大和魂 : 일본정신)이라는 글에서 "내지의 어머니들을 근본적으로 본

받을 때가 이 때라 생각합니다.....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어머니 자신들이 우리나라의 대화혼을 몸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라고 쓰고 있었다.(金仁洙, 「日帝末期의 基督教 彈壓과 教會의 御用에 대한 小考」, 「教會와 神學」, 제 19집 (1987), 243쪽 脚註 59 참조.)

박마리아는 '자식 둔 보람, 어미 된 면목,' 김활란은 '징병제와 반도 여성의 각오' 등의 논설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일제의 용병이 되어 전쟁터로 나가라고 격려했다. 비록 이들이 자원해서 한 일은 아니라고 해도, 그들의 친일 부역행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끄러운 작태였음에 틀림없었으며, 역사 앞에 용서받기 어려운 어용, 변절이었다.

그 외에도 교파를 초월하여 기독교계 인사들이 일제의 전쟁을 위해 부역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고, 통탄스러우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감옥에서 죽을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던 목사들과 교우들을 생각할 때, 감옥에 가기 싫어 원치 않은 일을 해야 했고, 하기 싫은 말을 하거나, 또는 글을 써야 했던 이들의 행각에 오히려 인간적인 동정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확실히 정죄되어야 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가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망막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커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해당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기간 인체에 머물러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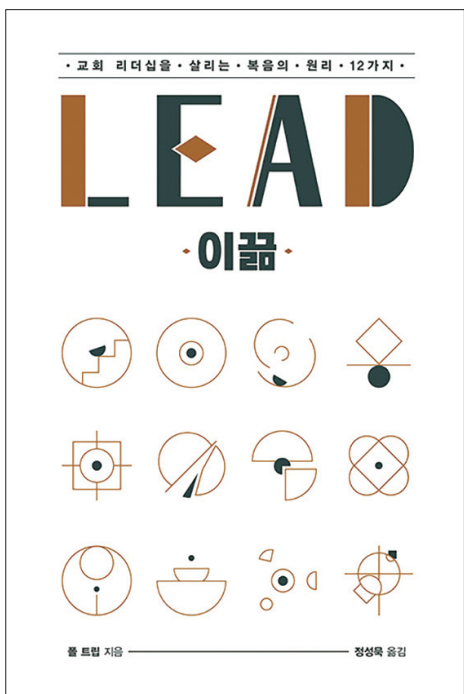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 Tax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복음으로 건강하게 교회를 이끄는 방법

폴 트립: 복음은 거듭난 후에도 더욱 필요하다



이끌: 교회 리더십을 살리는 복음의 원리 12가지
폴 트립 | 정성목 역
디모데 | 270쪽

나는 리더였지만
나를 이끌어줄
사람들이 필요했다.

모든 리더는
교회라는 영적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
서로 지지해주는
리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끌〉의 저자 폴 트립은 '성경상담학자'로 국내 잘 알려진 저자이다. 아바서원에서 출간한 〈복음 위에 세운 결혼〉(2022), 생명의말씀사에서 출간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2021), 〈소망 묵상〉(2021), 〈은혜 묵상〉(2020), 〈복음 묵상〉(2020), 〈눈보다 더 희게〉(2019), 〈고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2019),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2017), 〈완벽한 부모는 없다〉(2017), 〈경외〉(2016), 〈목회, 위험한 소명〉(2013). 두란노에서 출간한 〈돈과 영성〉(2019),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원〉(2012). 미션월드에서 출간한 〈관계가 주는 기쁨〉(2009). 디모데에서 출간한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2007),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2004),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2003) 등 정말 많은 책,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실질적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 책을 많이 썼다.

그런데 저자는 〈이끌〉에서 흥미롭게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지금까지 책을

한 권밖에 쓰지 않았다는 농담을 자주 한다. 그 책에 매년 다른 제목을 붙였을 뿐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복음이 무한히 깊어서 평생과 파 내려가도 바닥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의 삶에 적용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도 방대하고 다양해서 복음의 시각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것들이 무한대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12쪽).

〈이끌〉은 리더십에 관한 책이지만 폴 트립의 말대로 이 책은 복음에 관한 책이다. 2013년 출간된 〈목회, 위험한 소명〉 이후 저자가 들었던 여러 가지 피드백이 이 책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고, 무한히 깊고 삶의 구석구석 적용할 수 없는 곳이 없는 복음이 이 책의 내용이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책의 소제목은 보편성과, 복음, 한계, 균형, 인격, 전쟁, 종, 솔직함, 정체성, 회복, 장기적인 사역, 임재 등 모두 목회와 관련된 주제이다. 어떤 면에서 저자는 모든 챕터마다 똑같은 원리를 제공하는데, 모든 원리가 ‘복음’이라는 같은 출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목회는 복합적 요소가 어우러진 사역이다. 조금은 따로따로일 것처럼 보이는 소제목들이 사실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과를 추구하면 복음에서 멀어진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균형이 깨진다.

인격을 주님께서 빚어주셔야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하고, 회복을 위해서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나눌 대상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의존해야 한다.

리더십에 관한 책은 정말 많다.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어떤 리더십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인지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리더십을 다룬다.

하지만 크리스천 리더십은 복음이 살린다. 개인의 카리스마나 뛰어난 역량이 아니라 복음이 만든다. 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던 일곱 사자는 그 교회 세워진 리더였다.

주님의 권세가 리더에게 은사와 지혜를 주신다. 리더 안에서 발견되는 능력과 지혜가 아니다. 리더가 먹고 돌봐야 할 양을 주님은 “내 양”이라고 부르셨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지, 리더에게 전적인 책임이 달린 게 아니다.

초대교회 때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신 분도 주님이시다. 리더는 주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다. 리더가 갖춰야 할 인격적 자질과 성품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향한다. 날마다 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갑주는 복음의 갑주다. 요컨대 크리스천 리더십의 핵심은 복음이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복음의 원리가 쉽게 망각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복음의 원



저자 폴 트립의 인터뷰. ©유튜브

리가 빠진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리더가 도중하차하고 추락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목회, 위험한 소명〉이 목회를 앞둔 사람의 필독서였다면, 이 책 〈이끌〉은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의 필독서라고 생각한다. 과연 자신이 발휘하며 추구하고 있는 리더십이 정말 복음의 원리에 따른 리더십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목회의 소명에 충성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활동이 복음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모든 은사와 섬김이 그 자체로 은혜인 것처럼, 이끄는 것도 은혜다. 은혜를 은혜로 받

아들이며 그 안에서 풍성한 동력을 얻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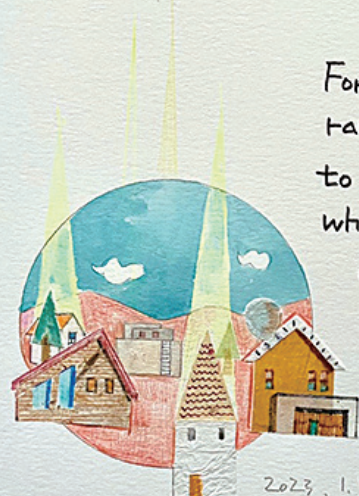
몸의 다른 지체를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봉사하도록 이끌 책임이 있는 리더가 정작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명예와 완벽하고 싶은 욕구와 자기 자랑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복음은 거듭난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후에도 더욱 필요하다. 〈이끌〉에서 폴 트립이 말하는 성경적 복음으로 건강하고 복된 이끌을 감당하기를 간구한다.

조정희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이런온이의 눈은 온땅을 두루
감찰하시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항상하는 자들을 위하시라
능력을 베푸시라 하니
역대하 16:9



For the eyes of the LORD
range throughout the earth
to strengthen those
whose hearts are fully
committed to him.

2 CHRONICLES 16:9

2023. 1. 14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36개월까지 0%이자가

NEW 2023 HYUNDAI IONIQ 5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NEW 2023 HYUNDAI SANTA FE SE

NEW 2023 HYUNDAI SANTA CRUZ S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29

HARLEY KIM
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2023

새해에는
행운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뮤지컬 영화 <영웅>(2)

안중근과 본회퍼... 기독교인 암살 가담, 타당한가?

신앙 위배 위험성에도 무장투쟁 정치적 정당성 있어도 조심해야 암살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는가 신앙인 안중근 선택 일말 아쉬움

◆안중근의 비폭력 항일운동: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반제국주의, 민족자주 운동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한국의 쇠락한 국운을 절감한 안중근 의사는 국권회복 운동에 힘을 쓸 것을 결심한다. 처음 그가 채택한 국권회복 방편은 교육을 통해 정치, 경제, 국제정세에 무지한 국민을 계몽시키는 것이었다.

이날 당시 그가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만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과, 상해에서 만난 프랑스 가톨릭 성직자 르각 신부의 조언을 따른 것이었다. 그리하여 1906년 안중근은 가문의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 삼흥학교(三興學校)를 세운다.

이처럼 비폭력 자주운동 노선을 걸던 안중근이 직접 총칼을 들고 항일무장투쟁에 뛰어든 것은 이듬해인 1907년이었다. 그는 강원도와 황해도로 거쳐 연해주까지 각지의 의병부대들을 찾아다니며 항일운동을 벌일 기회를 찾았다.

사실 안중근의 타고난 기질은 이렇게 총칼을 들고 침략해오는 일본군과 싸우는 데 더 적합한 것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무재에 능했고, 이미 10대 때부터 부친과 함께 황해도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 의병으로 참전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을사조약 이후 즉시 무장투쟁에 뛰어들지 않은 것은 동학란이 잠잠해진 후 그의 가문이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신교와 가톨릭을 막론하고 기독교 신학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기독교인이 총칼을 들고 인명을 살상하는 것은 살인을 금하는 신구약 공통의 계명에 위배된다.

다만 외적의 무력 침략과 같이 자위권 발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독교인도 정당한 국가권력의 명령 하에 방어진을 펼칠 수 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연합군 스나이퍼 다니엘 잭슨 이병(베리 페퍼 분)이 독일군을 하나씩 사살하면서 시편 구절을 외우는 장면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정당하다. 나치 독일의 침략전을 막기 위해, 국가의 정당한 명령을 받아 참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안중근의 경우는 상황이 모호했다. 일단 일제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식민지화 작업을

차근차근 수행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이전 임진왜란 당시처럼 명백한 무력 외침을 감행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었다. 게다가 을사조약 체결에는 고종과 대한제국 조정 대신들도 깊게 관여되어 있었다.

안중근은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톨릭 신앙에 위배될지 모를 위험성을 무릅쓰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무장투쟁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끝은 모두가 알다시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이었다.

사건 직후 가톨릭 교회 측은 이 암살 사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안중근이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것은 인정되나, 암살 행위 자체는 성경의 계명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오늘날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하얼빈 의거가 나라를 위한 순국의 결단에 따라 감행된 것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 또한 안중근 의사가 영웅적인 순국 열사라는 사실에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하얼빈 의거라는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안중근의 항일 무장투쟁: 안중근과 본회퍼, 기독교인의 암살 가담의 문제점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 사건은 통쾌하고 정당한 일이다.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일본 내각 초대 총리를 징벌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시각은 오늘날 국제정치 질서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원칙, 바로 민족 자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세속 정치 관점으로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위배하려는 세력이 등장했을 때 적극적으로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징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물론 민족의 자주독립을 주장하던 약소국 독립운동 지도자들 가운데는 앞서 언급한 한국의 안창호 선생이나 인도의 간디처럼 마지막까지 비폭력 노선을 고수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소수의 사례에 불과하고, 정당한 민족 독립운동이나 민주주의 혁명은 거의 항상 국가 간 전쟁이나 대규모 내전을 수반했다.

오늘날 세간에서 큰 칭송을 받는 근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점,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모두 애초 전제군주의 부당한 압제에 저항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총칼을 들고 정권에 반기를 들면서 시작된 일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당한 폭력 사용의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얼빈 의거는 칭송받아 마땅한



하얼빈 역 군중 속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도착을 기다리는 안중근(정성화 분).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세속의 정치원리보다 성경의 가르침을 우선 따르려는 삶의 태도를 갖는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정당하고 칭송을 받는 일이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면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안중근 의사 사례에서처럼 기독교 신앙과 정당한 정치적 폭력이 내적인 갈등을 빚어내는 일은 유럽에서도 존재했다.

하얼빈 의거 35년 뒤인 1944년, 나치 독일 패망이 확실시되던 시점에 히틀러 통치 방식에 불만을 가졌거나 패전 후 독일의 앞날을 걱정하던 독일 정치권과 군부 유력자들과 명사들은 히틀러 암살과 쿠데타를 시도했다. 하지만 폭탄을 이용한 암살 기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주요 군 장성 몇 명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히틀러는 경상을 입는 데 그쳤다.

영화 <작전명 발키리>로 널리 알려진 이 7·20 음모에는 나치 정권에 저항하던 독일 고백교회 주요 인물이었다던 본회퍼 목사도 동참하고 있었다.

본회퍼는 안중근 의사처럼 직접 암살을 실행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 암살과 쿠데타 성공을 위해 해외 기독교계 인사들과 미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체포당해 나치 독일의 완전한 패망을 2주 앞둔 1945년 4월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본회퍼는 자신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암살 사건에 가담한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미친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 있을 때, 기독교인의 본분은 그 버스에 치어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 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기사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신학계의 일반적 해석은 본회퍼의 이 말이 그가 원래 주장했던 기독교 신앙윤리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

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다. 과연 암살 외에는 다른 저항 방식이 없었는가? 본회퍼 같은 충출한 기독교 지도자가 직접 거사에 가담할 만큼 암살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가?

안중근에 대해서도 같은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안중근의 의거는 김구, 김원봉, 이봉창, 윤봉길 등의 활약과는 약간 다르게 봐야 할 측면이 존재한다.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신앙과 무관하게 오로지 국가의 자주독립을 최고의 가치로 바라보고 암살을 단행했다. 하지만 안중근은 이 땅의 나라 외에도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를 유념하고 자신의 앞길을 선택해야 하는 독특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안중근 의사가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혹은 현대 국제정치 관점에서 영웅적인 삶을 산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도산 안창호 선생과 같이 마지막까지 신앙의 정신에 의거해서 국민들의 교육과 계몽에 힘쓰는 선택지도 존재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선교사들과 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의 비폭력 반제국주의 저항 운동은 무장투쟁이나 암살을 통한 독립운동 못지않게 후대의 대한민국에 큰 발자국을 남겼다.

그러하기에 영화 <영웅>에 묘사된 안중근 의사의 치열했던 무장투쟁의 삶은 한국인 관객 입장에서 볼 때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뜨거운 애국의 열정을 증명하지만, 한국 기독교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신앙인 안중근이 마지막까지 믿음에 입각한 독립운동 노선을 확고하게 고수하지 못한 데 대한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원)국제비즈니스 USA 이사장
(원)남가주 교외법원의 전문 변호사
(원)제미발행기 협회 고문 변호사
(원)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행해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GRAND OPEN

올코샵 그랜드 오픈

KIDOK SHOP 과 함께 합니다.



계묘년 토끼처럼 높이 경충! 날아오르는 한 해 되세요.

CHOUETTE
하나사면 하나공짜
 슈에뜨와 함께 새해를 출발하세요

400 \$199

녹는 콜라겐 마스크팩
 슈에뜨에서 공개하는 첫번째 스페셜 아이템

3초만에 흡수되는 녹는 마스크 패치로 콜라겐과 비타민 충전!

콜라겐 비타민 패치 이마타입 Collagen Vitamin Patch Forehead	콜라겐 비타민 패치 눈타입 Collagen Vitamin Patch Eye	콜라겐 비타민 패치 볼타입 Collagen Vitamin Patch Cheek
--	--	--

초미세 흡수력
 3초만에 흡수되는 5만 나노 하이버 패치

식물성 비타민 C
 1,000ppm 함유

수용성 콜라겐 99.9%
 인체 콜라겐과 유사한 수용성 콜라겐

간편하게 피부관리 하세요!

SNOOZY SOCKS

패션 자수양말 스누지 입점

스누지 5 패키지 자유선택
 원하시는 디자인의 제품을 5개 골라보세요.
 귀여운 패키지박스에 담아 드립니다.

패션양말 스누지는 당신들을 위한 선물이입니다.
 당신의 스타일은 완성이 아니라 이제 곧 시작입니다!

Sulwhasoo

에센셜 컴포트 데일리 루틴 세트
 ESSENTIAL COMFORT DAILY ROUTINE SET (각종 2종)

BEST SELLER

10% OFF
~~130~~ \$116.50

5개입 \$30

Rucca 화산재 석고 마스크팩
 Volcanic Ash Plaster Mask

피부정화 부카 화산재

석고 마스크를 간편하게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등이 펴지면 인생도 펴진다

신축성이 좋은 어깨 밴드로 거드방어의 불편함 해소

지지대 없이도 탄성 있게 자세를 잡아주는 등판

두껍고 둔탁하게 입지 말고 **무봉제 기술**로 얇고 가볍게!

“등이 굽으면 거북목, 워킹장애, 허리디스크 등 모든 질병의 원인”

\$45 \$38

어깨를 중심으로 등과 허리까지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메세지 **Message chocolate**

벨콜라데(Belcolade)는 벨기에왕실이 사랑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로 최고급 코코아 버터와 천연 바닐라를 사용해 깊은 풍미와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식감을 자랑합니다.

아티스트 초콜릿은 세계3대 초콜릿으로 꼽히는 벨기에의 프리미엄 초콜릿 벨콜라데(Belcolade)의 순수 100%코코아 버터만을 사용한 최상급 초콜릿입니다.

도소매 전화상담

ALLKO 올코 SHOP

KIDOK SHOP

Undergent

RIVISTA

SNOOZY SOCKS

Sulwhasoo

CHARMZONE NC1

매장주소 3055W.7th Street
 Los Angeles CA90005

Ch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

기독샵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 상담!

기독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www.kidokshop.com

전화 상담
 213-235-6663

스캔하고 상담하기!

도소매 문의 환영